

황화염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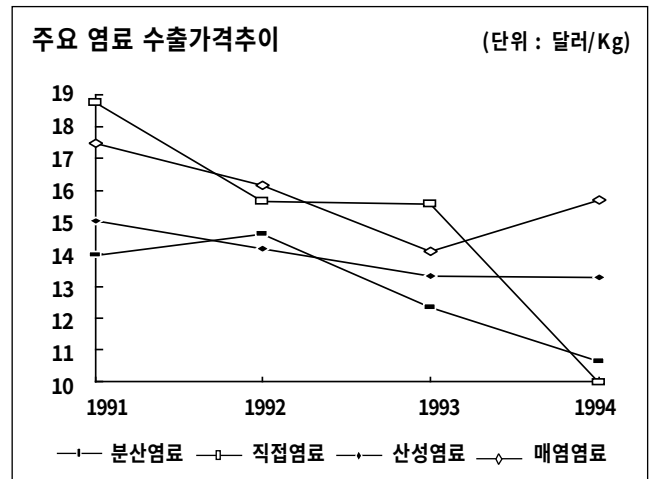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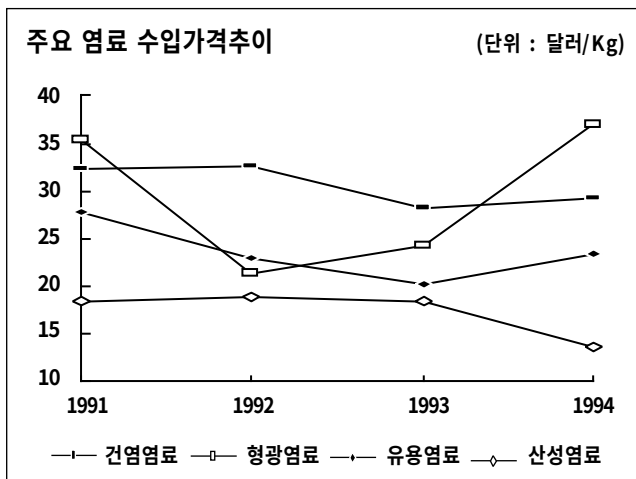
94년 황화염료의 총 생산량은 1430톤으로 전년대비 50.5% 감소했으며 내수는 1525톤으로 22.2% 감소했다. 수출은 987톤으로 전년대비 48.0% 감소했으며, 수입은 1082톤으로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섬유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섬유 및 의류제품의 고급화정책에 따라 섬유소재의 고급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반응성 및 분산염료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황화염료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황화염료가 주로 사용되는 분야는 레이온으로 레이온의 시장축소도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생산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94년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화염료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이 6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격경쟁에서 국내기업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황화염료의 최대 생산국인 미국과 유럽이 공장자동화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저가의 황화염료를 세계시장에 내놓고 있으며,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환경문제가 거세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황화염료의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황화염료의 산화제로 과산화수소를 비롯한 Oxidant LL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반응성 염료와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크롬산칼륨($K_2Cr_2O_7$) 및 중크롬산나트륨($Na_2Cr_2O_7$) 등 중금속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세계적으로 황화염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 황화염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산도스동국과 신원상사이며 산도스동국은 총 1393톤을 생산해 전년대비 51.2% 감소했으며 신원상사가 37톤을 생산했다.

이외에 산도스동국의 국내 파트너인 동국화공이 스위스 산도스의 제품 등 일부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산도스동국은 고급그레이드인 수용성 황화염료를 2년전부터 들여와 시장에 선보이고 있으나 반응성 염료 등 대체품과의 가격차이가 없어 기대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산도스동국은 내수시장의 50%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69%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화염료의 가격은 일반제품이 Kg당 2500 35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가격은 94년초 2 3개 그레이드가 10%정도 인상된 이후 95년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용성 황화염료는 Kg당 4000원선으로 기존 황화염료에 비해 15%정도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 경쟁품목인 반응성염료의 가격정체로 더 이상의 가격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96 화학연감 >